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새벽말씀(편집본)

새벽제단에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기대하신다. 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실까?”

그래서 세 가지를 불러주었는데, 아마 그것은 맞추었을 것입니다. 맞추었을 줄 압니다.

① 기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대를 잘 하신다!

하나님은 기대의 존재자이십니다.

기대를 이뤄주어야 뜻이 이뤄지니까 기대를 하신다.

② 인간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를 하신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를 하신다.

③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신다.

‘내가 해 줬으니까 내놔!’ 이렇게 기대를 하신다.

이 세 가지를 냈는데 헛갈렸지요?

‘어떤 것이 답인가?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번이 아닌 것 같네. 2번인 것 같다. 아닙니다. 1번이네.’

빨리 결정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을 센 후에 답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답하세요.

여섯!

빨리 결정해요.

일곱!

결정 안 한 사람은 빵점입니다.

여덟, 아홉, 열!

다 끝났지요?

3번이었습시다!!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1번도 답이기는 답이지만, 오직 결정한 답은 3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번도 맞습니다. 답입니다. 2번도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다 맞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도 많이 해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존재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 결정한 것은 분명히 3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이 해 주었으니까 많이 기대를 거는 것이다. 해 준 것도 없이 기대 하겠느냐?”

나부터도 여러분들에게 해 주었으면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남보다 더 많이 해 주었으면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더 잘 되게끔 더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라는 것은 무슨 욕심도 아니고, 특별히 더 바람도 아닙니다. 잘 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우리가 한번 말을 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고 좋아했는가 하면 조상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예뻐서 부터. 버리지 않고 또 하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은 지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사랑했다.” 이렇게 따지고 나갈 때 “인류 출현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 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지요? 나를 너무 좋아하지요?”

이것이 굉장히 큰 기도입니다. 그것이 깨달은 기도입니다.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번 해 봐요. 그러면 가래침을 뱉은 것 같이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지요?” 했고, 한 사람은 옆에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별로로 생각되지요?”하고 둘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 봐요.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보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못 사랑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는 것이 제일 큰 기도입니다. 엄청나게 큰 기도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알아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 거대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대하는 것을 많이 아는 자가 결국 ‘구원자’가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그래서 늘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내가 보낸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선생님 갖고 무엇을 배우지?” 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묻는 것에 대해서 언제 내가 모른다는 소리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모른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네가 어리니까 내가 대답 안 할 뿐이다.”합니다.

모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물어봐서라도 기어코 답안지를 가르쳐 줍니다.

“몰라서 대답 안 함이 아니오, 알아도 너희들이 어리다. 그래서 대답 안 한다. 더 커라.”
그렇습니다.

선생을 아는 것,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싫어하는가 하니, “나, 안 사랑하는가봐.” 그럴 때 제일 싫어합니다.

환난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런 환난에서 안 지켜 줍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환난을 안 지켜줍니까?” 하는데, 경험해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할 것도 없이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면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데 왜 놔두십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해서 손 안 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알아서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고 원수 사랑하라고 해서 그 법을 지키느라고 나는 손을 못 땁니다.”

“네 애인이 있다고 하자. 그가 애인인데, 길을 가다가 누가 야유를 했다고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야유했어? 에이, 더러운 놈의 새끼야. 이빨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얘기하네.’ 그래 봐라. 그러면 네 애인이라도 말이 거치니까 네가 기분이 나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야유해도 웃어 주고 지나가고, ‘저 년, 미쳤네. 웃고 있네.’ 그래도 답례하면서 지나가고 그러면 ‘아, 인격적인 여자구나.’ 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사람들이 너를 원수시하고 나쁘게 해도 웃으면서 지나가면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택했다는 것을 ‘아, 저래서 택했구나.’ 하고 마귀도 사탄도 끄덕거리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못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줘야 하는데 환난 때 안 해 준다고 섭섭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등을 돌리시고, 쳐다도 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들이 저래도 용서해 주시고, 저런 것은 내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정신을 교육시켜 주시고, 연단 시켜 주셨으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화난다고 재들 확 심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갈 때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 정말 환난 때문에 못 살겠네.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그런 말을 하느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도 잘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잘 되게 해 주었는데?”

‘잘 되게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될까? 아! 내 책임분담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교육시키고, 자기가 생활 가운데 자기를 키우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머리에다 세뇌도 시켜 주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 세뇌를 시키고, 자기를 굳건히 만들어라.”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진찰도 하라!

자기 배고픈 것은 자기가 알아서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자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와 둘이 합하면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불만, 불평을 토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제 할 일을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웃으면서 지내야 됩니다.

선생님께 배우고 간 사람은 매일 웃잖아요. 그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 가면 너무 좋지 않습니다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들 보이면 하겠다고 합니다. 천만에! 보여도 못 합니다.

할 사람은 안 보여도 하는데, 보여도 못 하는 사람은 못 합니다. 보일 때 하는 사람은 안 보여도 잘 합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메시아가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 내가 겪은 것을 볼 때도 가장 큰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세상에서는 육신이라 그렇게 못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를 잘 모실 것인가? 결혼해서 남편을 어떻게 잘 모시고 살 것인가? 결혼해서 어떻게 부인을 잘 모시고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해서 기업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멋있게 살 것인가?’

이것을 전부 모릅니다.

아는 것이 큼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면 오늘부터 씹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우면 바로 나가면서부터 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몰라서 못살고, 몰라서 실패하고, 죽을 때까지 모르다가 죽습니다. 그것만 알면 끝나고, 그것만 알면 멋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가는 것입니다.

선생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딱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내 진로가 무엇입니까? 딱 한 번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사실상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정치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나 그것은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대개 나는 그랬습니다. ‘공부도 못 했으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자.’

그러나 농사를 지어보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과일나무 많이 심어놓고 계절마다 과일을 따먹고, 그리고 여러 동물을 길러서 계절마다 잡아먹자. 고기를 사다 먹기는 힘드니까 내가 고기 농사를 짓자. 월명동에 집을 잘 지어놓고 여생을 하나님 섬기면서 보내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상세계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석막교회에서 장로까지 하면 된다. 내가 장로까지는 바라본다. 장로까지 하여 만족한 생애를 거기서 끝내자. 목사는 힘들다. 그것 하려면 또 고향을 떠나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내 주제에 목사하기가 힘들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일나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가꾸느냐? 불쌍한 사람들을 거리에서 전도해다 데려다 놓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먹고 즐기자.’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은 나의 계획이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 계획대로 <역사>가 돼서 성지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일나무 같은 것은 육적인 것이니까요. 영적인 과일나무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신앙의 농사, 생명의 농사를 짓습니다.

이러면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소원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지켜워서 또 버렸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꿈이 이루어져도 얼마 못 가서 바로 또 버립니다. 지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심령의 낙이 없으면 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전2:24).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혜를 쓰고 백성들 동원시켜서 다 했습니다. ‘연못 파놓고 멋있게 해 놓고 살아보자. 포도나무 발을 심어놓고 주렁주렁 포도 여는 것도 보게 왕궁 옆에다 만들자.’ 그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녀들을 데려다 춤을 추는 것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낙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이다.’ 그것을 깨닫고 잠언을 통해서 쓰고, 전도서에 읊어놓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경험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고, 옷 못 입어서 벌거벗을까봐 걱정하고, 잠 못 자서 불면증 걸릴까봐 걱정하고 하는데 인생이 태어나서 무슨 그런 걱정들을 합니까? 저 산에 사는 동물들도 그런 걱정들을 안 하는데. 산의 멧돼지가 옷을 못 입어서 걱정합니까?

사람이 됐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거대한 사고를 가져요! 그래서 천상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구촌에 사는 나라는 대국이든 소국이든 보면 웃깁니다. 그 사고들은 지극히 육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삽니다. 물질을 좋아해서 물질을 벌어들여 쌓아놓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공허를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은 마음의 세계로 연결됩니다! 마음은 마음의 세계, 하늘의 영의 세

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체 돼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자와 즐겁게 같이 놀기를 원하는데 가서 남자와 놀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지요.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서 운동하면 풀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밥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운동해야 풀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때와 시기를 따라 절대 하나님을 믿음으로 즐거운 낙을 누리야 될 것은 다른 것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서 전도할 때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냉장고 사다 놓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나? 그것은 육적인 세계다.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았다. 나도 신앙생활 해 보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쫓아봐라.”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는 싫어하지만 가서 적극성을 갖고, 확실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쪽쪽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고, “한번 따라가자.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전도자는 이렇게 우습게 생겼어도 전도자 필요 없다. 나는 우습게 생겼어도 전달 만큼은 하나님의 전달을 내가 가지고 왔다. 내가 전달하니 한번 그렇게 해 봐라.”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사람보고 따르지 말고, 나를 보고 ‘내 전달자’의 말을 듣고 한번 쫓아 봐라.”

그러면서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시원찮게 전하면 10년을 해도 안 되지만, 확실하게 전하면 그날 됩니다.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확실하게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따랐더라. 표적이 따랐더라.”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인생을 살 때에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 주를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아내가 되었으면, 하늘의 신부가 되었으면 신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이라고 해서 특별 서비스를 다 받고만 있는지 압니까? 나도 노력해야 됩니다. 나도 10발자국을 가야 10미터를 가지게 되고, 100보를 가야 100발짝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해서 10미터 갔는데 100미터 간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많이 가야 됩니다. 머리통이기 때문에 한 발짝이라도 더 가야 됩니다.

다 죽어 가는 소리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죽어 가는 그 환경을 안 느꼈습니까? 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죽어 가는 무덤 기간에 최고의 고통을 받았어도 티도 안 내고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 전할 것 다 전해 주었습니다.

할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새벽 예배 안 가고, 저렇다고 안 가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후회가 될 때는 영원한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후회가 됩니다.

왜 영원한 후회가 되는가 하니, 여기에서 만들 때 못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수준

에서, 은에서 영원히 끝납니다. 금이 될 사람이 은이 되면 항상 은 취급받으며 인생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하라! 육신 썼을 때 영혼 문제의 운명을 좌우시켜 놓아라!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고 칩시다. 죽을 때까지 그랬어도 죽는 날 영계에 가서는 “내가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나?” 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그저께 진수성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잘 먹네. 생일날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잘 먹었네.” 하는데, 그것이 며칠 갑니까? 며칠이나 갑니까? 곧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해집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것을 겪고, 누렸어도 영계에 가 있으면 ‘내가 잘 지냈었나?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가? 그것이 부귀영화였던가? 그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세계에 신경을 못 써서 오히려 보다 흑암권에 와 있구나.’ 합니다. 그것을 복직하려면 죽어납니다. 복직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여기 대둔산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 많습니다. 대둔산을 보면 구름다리 쪽이 있습니다. 거기서 툭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는 “으악!” 하고 일순간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어 올라오려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떨어질 때는 툭 떨어졌습니다. 그놈의 것을 기어 올라가려면 절벽 타기를 배워야 되고, 암벽 타기를 배워야 됩니다. 손톱 발톱에 뚝살이 질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3-4년 배운 다음에 기어올라가지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떨어지지 말자. 조심하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졌으면 또 다칩니다. 허리가 부러졌으면 허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못 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잘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하니 ‘탈락’이라고 하잖아요. 탈락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대학교 공부하다가 탈락되면 그 이듬해에야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공부를 죽자살자 해야 됩니다.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나는 공부 안 하는 것이 팔자야.’하고 안 하면 또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주인’입니다.

선생님은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에이, 하겠다.” 해야 됩니다. 수영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못 해. 아이고, 나는 못 해. 나는 무슨 팔자로 수영이 안 되지? 이것이 신의 팔자야. 나는 수영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 그러면서 그렇게 돌립니다. 죄도 없는 하나님께 계속 집어던져 놓고 “수영 못 하는 것은 신의 팔자야. 다른 사람에게는 다 소질과 재질을 주고 나에게는 안 준 것이 아니야?”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아니다. 나도 하나님이 잘하게끔 예정해 놓으셨다.” 하며 꼭 뛰어 들고, 물을 먹더라도 허우적거리면 바로 수영을 배웁니다. 그냥 바로 배웁니다.

정식적으로 멋진 수영은 단계별로 배워야 되지만, 그냥 막 하는 것은 바로 배웁니다. 즉

시 배웁니다. “너, 물속에서 못 나오면 죽는다.”고 해 봐요.

해병대들이 수영을 잘 합니다. 다 수영 잘하는 사람만 해병대에 들어오라고 해서 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 갖다가, 수영 연습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헬리콥터로 공중으로 실어다가 다 똑같이 바다에다 떨어트려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막 허우적거리다가 수영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즉시 배워서 나옵니다. 육지에서 100미터, 200미터 떨어진 곳에다 갖다놓으면 허우적거리며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해 보면 수영이 쉽습니다. 별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어놓고 하니깐 바로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하면 바로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유 있게 하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될 것은 목숨을 걸어 놓아야 그때 됩니다. 빨랫줄에 모가지를 걸어놓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숨 쉬려고 얼른, 빨리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주관하고 자기를 다스려야지, 언제 자꾸 시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자꾸 시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나는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지요.

그러나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다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그냥 해야지요. 다 컸는데 집에서 자꾸 어머니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청소시키면 하더라도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놔두고 가다가 청소한 후에 “깨끗하게 되었네?” 그러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서 좋다. 기분 좋다.”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응. 네가 했구나. 나는 네가 할 줄 알았다. 아까부터 알았다. 그런데 하는 것이 약간 늦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새벽부터 하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안 시킵니다. 옛날에는 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안 시킵니다.

알아서 하라. 다 컸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천둥번개 치듯 명령하시고, 그래도 안 하면 성령은 감동시켜 주세요.”합니다.

감동되면 갑니다. 사람이 감동되면 갑니다. 감동이 되면 갑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감동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데 안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상대성 세계인데.

섭리의 전반기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쫓아다닙니다. 집 앞까지 쫓아다니고, 휘파람 불며 쫓아다니고, 시간 없다고 해도 쫓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짝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결혼했을 때는 뒤집어져서 여자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할 때는 이혼인 것입니다. 쓰린 꼴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힘이 두 번은 없습니다. 딱 한번 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힘을 여자를 끌어들이는 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자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못 할 때는 이혼입니다.

“후반기 경기가 그것이다. 후반기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못 할 때는 코치가 없다. 그냥 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해야 겨우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안 걸고서도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절대 믿음의 기대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자기를 믿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믿는 기대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은 꼭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절대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걸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실체 기대를 겁니다. 실제 행동 기대를 겁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안 해 주면 힘 빠집니다. ‘설마 해 주겠지.’ 하며 언제까지 기다려주는지 압니까? 끝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해 주겠지.’ 했으면 12시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밤 12시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기어코 합니다.

선생님 기질 중의 하나가 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끝까지 하라!

내가 책망 주고, 창피 주고, 혼 내키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막 책망해도 “감사합니다. 잘 혼났습니다. 내가 혼나고 깨달았습니다.” 하며 계속 오는 것입니다.

‘에이, 선생님이 나를 혼내키고 있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내가 혼났구나. 이러려고 섭리 뛰었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혼났는지 압니까?

나를 보고 “너는 틀렸다. 안 되겠다. 사람 뽑아야 되겠다. 오늘 사람 뽑으러 갔다 올 거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예수님을 쫓아 다녔습니다.

“없잖�아요. 뽑을 사람이 있어야지요. 없지요?” 그러면

“너 밖에 없어.” 그리고는 또 테리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크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조금 서운한 이야기하면 팽동하고, 뼈죽뼈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나는 혼날 것이 있어서 혼나는구나.’ 하며 달게 받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했을 때 서운하게 생각하면 “그럼 너를 칭찬하랴?” 그러니까.

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옥에 갈 때까지, 마지막 발짝까지 지켜봅니다.

여기가 지옥이면 하나님은 마지막 발짝까지 지켜봅니다. ‘혹시 저 놈이 마지막으로 회개를 하려는가?’ 하고 모가지만 보이고, 대갈통만 보일 때까지 쳐다봅니다. 다 빠지고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입이 남았을 때 혹시 그 입에서 “하나님!” 하면 그때 다시 참조하려고 그때까지 쳐다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의식이 돼서 일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지구상에 있는 잘못된 것을 나에게 다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책임이다. 내가 구원하러 왔으니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죄를 대신 네가 죄지은 것같이 하고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라. 그 놈들 나쁘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러면서 가야 모든 것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이다. 책임자가 책임지고 행하면 세상이 다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맡겨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러면서 가는 것이다.”

잘 들었습니까? 요즘에 졸릴 때가 많지요? 새벽에 안 졸립니까? 졸립지요?

그리고 세계에 있는 각 나라 사람들,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잘 듣고, 또 틈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고 그러십시오.

이해를 못 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한 20분씩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40분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대단히, 진실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로서 좋아하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생활 속에서 신랑같이 그렇게 모시고 부르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로 드물고, 내가 통하니까 나하고만 서로 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떨어져 있으니 말을 못 합니다.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함이 원칙이지만, 내가 같이 가서 이야기를 못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먼 것으로 생각하니 이들의 생각에 은혜와 은총을 더 베푸사 하늘을 섬기고 사랑함이 가깝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천사도 자꾸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내 천사가 있는데 낙심치 않고 열심히 나를 돕게끔 한 마디 해 주세요.” 하고 자꾸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천사는 그 사람에게 배치시킨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자기에겐 한 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 이야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힘이 날 리가 있습니까? 자기를 책임진 천사인테요.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계와 육계도 잘 융화되면서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나라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터득하게 해 주시고, 약한 자를 건강케 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잘하는 사람에게 더 충만케 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도 더 이상적으로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늘 이끄사 이 시대 뜻을 펴는데 지장이 없게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이 섬리 나라로 돌아오게끔 계속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자 말씀 마쳤습니다.